

손병희 선생 봉황각 본뜬 '천도교 구 임실교당' 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전북지역 천도교 활동의 상징

1930년에 지어진 한옥 건축물로 문화재청 고시 통해... 임실군, 내년부터 원형 복원 나서

임실군 임실읍에 소재한 '천도교 구 임실교당'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군은 '천도교 구 임실교당'이 문화재청 고시 제2020-122호를 통해서 국가 등록문화재 제799호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천도교 임실교당은 1930년에 지어진 것으로 본체는 'ㄱ'자형 한옥건축물로 좌우로 6칸씩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앞뒤로 툇마루를 두었다.

한옥 종교 건축물로서 생활공간과 종교공간이 상호 공존하는 임실교당은 1912년에 손병희 선생이 세운 의창수도원 봉황각(鳳凰閣)의 내실(內室)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종교건축물이다.

손병희 선생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봉황각에서 천도교 지도자들을 훈련시켰다.

임실지역 천도교 지도자 중 민족대표 박준승, 천도교 임실교구장 김영원과 한영태, 삼화학교 건립자 최승우 등 10명이 1912년부터 1914년까지 6차례 걸쳐 49일 연성기도회에 참석했으며, 이후 1919년 임실지역 3.1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이곳은 1919년 임실지역 3.1만세운동 당시 서울로부터 전달된 기미독립선언서를 수령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당시 한영태 교구장의 지휘아래 임실 전지역에 독립선언서가 전달되면서 3.1만세운동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천도교 구 임실교당 전경.

(사진=임실군청 제공)

천도교 임실교구(교구장 김창식)는 천도교 임실교당이 있는 임실읍 성거리 367번지(757㎡)를 임실군청에 기부 채납했다.

김창식 교구장은 "천도교 임실교당이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군에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천도교 임실교당이 임실을 문화자산으로서 널리 홍보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군은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및 임실을 성거리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2021년부터 천도교 임

실교당의 원형복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임실읍내 임실향교, 천주교 임실성당, 지정항 신부 임실치즈공장, 천도교 임실교당, 왜거리 서식지 등을 잇는 동산을 따라 임실읍내 관광동선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천도교 임실교당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만큼 원형 복원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임실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063-640-2315)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희 기자



장수군은 지난 11일 장계소리에슈터 개관식을 가졌다.

소리문화 향유 공간으로 '변신'

장수 장계소리에슈터 개관
동적활동 문화공간 제공
난타·댄스실 등 조성돼

장수군은 지난 11일 장계소리에슈터 개관식을 갖고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공간으로 본격 운영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장계소리에슈터는 장계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옆 구 축산위생연구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소리 문화 향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장계소리에슈터는 지상2층 655.65㎡ 규모로, 밴드·난타 등 소리활동과 댄스·국선

도 등 동적활동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문화 시설로, 노래연습실, 난타, 댄스실, 동아리실 등으로 조성됐다.

군은 이날 장영수 군수, 김용문 군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하에 개관식을 진행했다.

장영수 군수는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생활문화 예술단체 회원들이 흥겹게 이용할 수 있는 '장계소리에슈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동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정적인 문화 생활 제공을 위해 현 군립도서관을 이용한 생활문화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설공찬 집안에서 일어나는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

순창군립도서관서 '다시 쓰는 설공찬이' 출판기념회

순창군립도서관에서 지난 11일 '다시 쓰는 설공찬이'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이 책은 순창을 배경으로 한 고전 소설 '설공찬전'을 김재석 작가가 다시 쓴 것으로, 순창에서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는 순창 설씨인 설공찬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다룬다.

이 소설은 우리나라에서 '금오신화'에 이어 두 번째 나온 한문소설이며, 최초로 한글로 번역되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설공찬전'은 조선 최초의 금서(禁書)로, 1511년 조선 중종 임금에 의해 모조리 불태워 이튿날 전해지다가, 지난 1997년 일부분만 극적으로 발견됐다.

주인공 설공찬이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조선의 판타지이며, 사촌동생 몸매 빙의되어 저승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소설의 대중화를 이끈 조선의 베스트셀러 소설로 평가된다.

'다시 쓰는 설공찬이' 출판은 순창군립도서관이 앞부분만 전하는 '설공찬전' 원전을 살리면서 현대적 소설로 작업하는 '순창고문화 콘텐츠 발굴사업'으로 진행됐다.

'다시 쓰는 설공찬이'는 순창의 문화가 가장 빛났던 15세기 말(1490년대)을 고스란히 살려냈다. 3,400여 지만 남은 원전의 공백을 김재석 작가가 역사 기록과 관련 지식을 두루 활용하여 다채로운 상상력으로 펼쳐냈다. 또한 김주연 화가의 삽화로 지금은 사라져버린 순창의



세시풍속과 공간을 살려냈다.

김재석 작가는 '다시 쓰는 설공찬이'를 통해 순창의 문화적 부활을 꿈꾸며 작업했다고 밝히며, 순창의 문화콘텐츠 발굴의 첫 단추로 문화가 살아 쉼쉬는 순창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시 쓰는 설공찬이'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두 남매의 이야기를 통해 영혼, 사후 세계, 남녀 평등, 가족에 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출판기념회는 작가 및 필사본 발견자인 이복규 교수 등이 참석하며, 참석자들에게 '다시 쓰는 설공찬이'를 기증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아이들이 전하는 '크리스마스 캐롤'

무주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비대면 진행

무주군은 제1회 무주군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지난 11일 저녁 6시 30분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주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고 무주군과 한국수력원자력(주)무주양수발전소, 한전KPS무주양수사업소, 성림고속관광, 픽스기획이 후원했으며 무(無)관객 공연 실행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첼로와 콘트라베이스 등의 파트별 연주와 합주로 '하늘나라 동화'를 비롯한 '사운드 오브 뮤직 중 도레미송', '크리스마스 캐롤' 등 20여 곡의 명곡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무주군 꿈의 오케스트라 안미영 음악감독은 "코로나19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연습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며 "직접 만나는 공연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유튜브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서 만나게 됐던 만큼 더 많은 관객들에게



무주군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

(사진=무주군청 제공)

더 큰 감동을 전했다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황인홍 군수는 "음악은 역경을 넘어서게 하고 우울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있다"라며 "이번 연주회가 화합에 지친 아이들을 위로하고 세상에 지친 어른들에게는 격려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두워진 지역과 나라 전체가 불을 켜듯 환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상호학습'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음악교육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건강하고 다면적인 성장을 유도한다는 취지에

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국고 보조를 받아 지원·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무주군을 비롯한 전국 47곳의 시·군·구 소재 거점기관이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한편, 무주군 꿈의 오케스트라는 관내 8~13세 취약계층 아동 5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음악감독 1명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호른, 타악기 등 악기별 강사 10명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